

# HP 아이팩 hx4700

---



와!

탄성이 절로터지는 멋진녀석이 출시되었다. 아이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긴 했지만 기존의 메탈 디자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비즈니스한 디자인의 변화는 마치 컴팩이 HP에 인수합병되기 전 HP에서 출시한 포켓PC인 조나다548(



동급 포켓PC중 성능이 켈로 구렸던...)의 후속모델 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조나다의 후속으로 나왔어도 좋았을것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목할만한 스펙은 480 x 640이라는 VGA급 해상도이다. 작은 화면의 답답함을 해결해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해상도 변화가 5년만에 실현된 것이다. 오래전 투x팁을 운영할 때 포스팅했던 글이 생각난다. "내 포켓PC를 업그레이드 해야할 시기는 VGA급 해상도가 적용된 모델이다."라고... 지금이 그 시기인것 같다.

이밖에도 넓은 4인치 TFT LCD와, 노트북의 터치패드를 PDA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채용 하였으며, CF와 SD 슬롯, 무선랜과 블루투스 내장, 인텔 624MHz프로세서, 렌드스케이프 완벽지원 등의 강력한 스펙을 자랑한다.



프로그램

9:00



Manager



PDF



Presentation



DockWare

HP Image  
Zone

HP Mobile  
Printing



iPAQ Backup

iTask

MSN  
Messenger



Nav Point  
Mode

Pocket Excel

Pocket  
Informant



Pocket MSN

Pocket Word

Print



PC 호환타입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관점이 이동해 버린 지금, PC 비호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양분화는 선뜻 구입하기에 꺼림직한 흑으로 남아 있다. 조금 더 하드웨어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지금도 내 아이팩 3630은 건재하단 말야~)